

제 4 회

전국간호대학 교수협의회 회보

주제 : 간호교육의 혁신

- ◇……매년 갖는 「전국간호대학 교수협의회」가 금……◇
- ◇……년도엔 지난 10월 6일 가톨릭의대 주최로 성……◇
- ◇……분도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가 내……◇
- ◇……건 주제 “간호교육의 혁신”은 현 維新政策에……◇
- ◇……도 아주 적절한 제목으로 주제강연, 패널토……◇
- ◇……의 등 모두 좋은 내용이라는 회원들의 여론……◇
- ◇……에 따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
- ◇……석 못했던 회원들을 위해 전반에 걸쳐 게재……◇
- ◇……하는 바이다. <출판부>……◇

대학간호 교육의 이념은 바람직한가?

<서울대 교수>

홍 여 신

오늘 주어진 주제 “오늘의 대학간호교육의 방향은 바람직한가”를 생각하기 위한 발발침으로서 “Death in the First Person”이란 어느 익명으로 된 간호학생의 수기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학생간호원이나,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이 글을 간호원인 너, 혹은 장차 간호원이 될 너를 위해 쓰는 뜻은 내가 이렇게 내 심정을 너와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여 언젠

가 나와같은 상황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네가 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나는 지금 병원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한달, 여섯달, 혹은 일년이나 남았을까?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질 않는다. 실은 아무도 이야기도 빌로 하고 싶어 하질 않는다. 아마도 간호사업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일테지. 그러나 제발 더 빨리

— 순 서 —

주제: 간호교육의 혁신

사회 강 홍 순

I. “대학간호교육의 이념은 바람직한가?”

서울대학교 홍 여 신
 페놀트의..... 이귀향 하영수 김순자
 최연순 한윤복

II. “간호원상은 바람직한가?”

사회 신 덕 화

1. 병원 행정가가 본 문제와 과제
 가톨릭의대 대학원장 전 종 취
2. 간호 행정가가 본 문제와 과제
 세브란스병원. 간호과장 이 성 덕
3. 간호원이 본 문제와 과제
 간호원 송영선, 문숙희
4. 간호 교육자가 본 문제와 과제
 연세대 교수 전 산 초

- 분과회의
- | | |
|-----------------------|----------------------|
| 1. 병원 행정가의 측면 | 좌장 김 주 희 |
| 2. 간호 행정가의 측면 | 좌장 김 광 주 |
| 3. 간호원의 측면 | 좌장 이 은 옥 |
| 4. 간호 교육자의 측면
종합회의 | 좌장 모 경 빈
사회 한 윤 복 |

발전울 재촉해 달라고 빌고싶다. 우리들은 너무 “낙관말타”고 또 “모든 것이 잘 되어 잡니다”란 의례적인 환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배웠고 또 제법 그 뜻을 잘 따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고독하고 소리없는 공백속에 혼자 놓여져 있다. “좋다” “잘 되어간다”는 의례적 방패를 잃은 채 오직 사신들의 허약과 공포와 함께 나란히 혼자 남겨져 있다. 죽어가는 환자가 아직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간으로 보이질 않는다. 다만 언제인가 우리 모두가 당면해야 하는 비참한 모습, 인간의 공포의 상상 그 자체 일 뿐.

정신과 간호학에서 무어라고 했던가? 환자와 간호원 모두에게 해를 주는 병적 마음과 마음의 단남, 그리고 남에게 진정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 자신울, 사신의 감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많은 이야기들, 얼마나 절실한 진리인가!

그러나 나는 오늘이 두려고 지금 죽어간다. 너

는 내가 누워 있는 방에 분주히 드나들고 있다. 약을 주느라고, 혈압을 재느라고 내자신이 학생 간호원이어서 일까? 아니면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의 느낌일까? 나는 네가 겁먹고 있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 겁냄은 내 공포를 더 해주고 있다. 너는 왜 두려워 하고 있지? 죽는 것은 난데! 불안해서, 무슨말을 해야할지 몰라서, 그리고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인 줄을 나는 잘 안다. 그러나 믿어다오 내게 만약 진정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너는 절대로 잘 못 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저 네게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만 인정해주렴 그것이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전부인 것울—. 가끔 우리들은 왜? 또 어디로? 하고 묻긴 하지만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제발 도망가지 말아 줘 거기 좀 기다려 내가 다만 알고 싶은건 내가 필요할 때 내손을 잡아 줄 사람이 옆에 있어 줄까 하는거야. 나는 무서워. 너에게는 죽음이 일상의 것이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겐 생소한 일이야 너에게 내가 특수한 경우가 아니겠지만 난 전엔 죽어본 일이 없거든 나에게만 다만 한번 겪는 일이 아주 특별한 경험이야 너는 나에게 내 젊음을 속삭이지만 사람이 죽어갈 때 정말 그가 그렇게 젊을 수 있는 것일까? 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많은 너의 시간을 뺏지는 않을꺼야. 어차피 너는 꽤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서로 정직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서로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서로의 접촉을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 진정 나를 위한다면 나와 함께 울어준들 네 전문직 명예에 그다지 흠이 갈까? 다만 하나의 인간으로서—. 진정 그럴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을 것을 병원에서 가까이 지켜보는 친구

들 앞에서—” A.J.N. Feb. 1970

우리는 지금 이 글 속에 두사람의 고뇌를 역역히 본다. 서로 선의를 가진 사람들,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입장에서 또 하나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무엇인가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인간적인 접촉을 방해하고 있다. 두 선의의 마음이 서로 어울려 원하는 복지의 증진, 신뢰와 안도감을 얻지 못한채 오히려 어두운 고뇌의 그늘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입장을 보고있다. 인간됨을 거부당한 바닥 없는 고적감, 불안과 공포와 실의 속에 내 던져진채—

우리는 늘 간호의 정의를 접할 때 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가지 기본적인 간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인간됨을 보존, 유지 혹은 회복하는 일을 돕는 일이다.

전인간호, 개발적, 포괄적 간호의 개념들이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던지가 쌓이도록 우리들이 간호하는 사람들은 참 인간된 대접을 확인하지 못한 실의속에서 불신과 소외감과 불안과 공포속에 버려져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잘 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그동안 날마다 누적되는 폭발적인 지식의 홍수속에 항시 노출되어 왔고 발전하는 의학,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이론과 풍부한 지식을 학습해 왔다. 그런데 이 넓은 배지와 풍성한 영양이 환자를 돕는 간호행위의 성과에 큰 성장과 결실을 가져오지 못했던 사실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아야 할 일이다.

Ida Jean Orlando 는 그의 저서 “The Dynamic Nurse-Patient Relationship”에서 모든 관련있는 다른 분야의 이론과 지식들은 간호의 원리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자기 다른 분야에서 얻은 일반

적인 원인들은 필요할 때 응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만 자동적으로 그들 자체가 간호행위를 인도하는 간호원리가 될 수는 없고 다만 환자의 행위, 간호원의 반응 및 간호행위가 조성하는 간호현장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간호의 원리는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환자와 간호원 자신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학습이 곧 간호행위의 핵심이 되며, 환자를 돕는 기본 framework 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자명한 사실은 간호는 Practicing art 란 점이고 많은 교육심리 학자들이 말하는데로 Science 는 넓은 의미에서의 기본적인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행위의 발전은 empirical practice 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정을 전제하고 보면 많은 지식과 기대하는 행위의 격차가 어째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있는 지점에 선다고 본다. 환자의 복지 향상과 고통정감을 목표로 하는 간호행위의 구현에 여백껏 부족했던 것은 지식의 공급이 아니라 간호현장과 간호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구할 교육 방법상의 결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한 지식의 자동적인 전이, 응용은 간호현장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 바람직한 일도 아닌 것은 때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의욕되지 않는 완벽한 이론이 주어진 한정된 입지 조건에서 아무런 의미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근래 교육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Process as Content”의 아이디어는 장차 올 세대에 대비한 창의적이고 개발식 학습의 형태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만 시사각각으로 변화하는 입지조건 속에 지속적인 적응을 피해야 하는 간호원리의 학습에 가장 알맞는 학습형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블레로 환자와 가족의 안녕복지에 기여한다는 목표에의 도달을 장애하고 있는 요인은 우리의

교육이 이상적으로든 단순한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상태로서의 건강을 구현하는데 두고 있으면서 여지껏 질병과 성중심의 학습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건강과 복지상태를 비취 볼 거울이 질병과정 중심의 framework 이라면 고작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실 복지상태와 질병이 없는 상태는 상당히 다른 차원에 있으면서 그 넓은 폭을 이해할 수 있는 frame of reference 를 마련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간호하는 목표가 정녕 복지증진에 있다면 우리의 교육도 건강과 정상적인 인생과정 중심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나 정상적인 인생과정이란 어떤 고정된 수준에서 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이 아니고 항시 변화하는 내적 외적 환경에 적응하며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역동적인 상황에서의 상태를 의미한다.

사실상 우리는 질병중심의 학습내용과 병원중심한 학습경험을 통하여 의학교육에 병행한 노선을 끝낸 따름으로서 실지로 급성적인 질병과정에서 주역을 맡아야 하는 의사들 그들에서 독자성을 부인한 조역에 분분하다. 대학교육을 받은 지성에 상처입은 내적 갈등과 좌절감을 달래야 하는 입장에 섰고 외적으로 특수한 공헌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학간호교육 무용론에까지 접하게 되는 비운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들이 지금 당면한 과제는 지난 일의 변명과 정당화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가반성과 역진적 방향 모색이라 본다.

의도계에 있어서의 현 추세로 보아 전문화 또는 분과별 전문화의 경향은 계속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겨질 많은 외로 보건의관리상

의 공백을, 특히 건강유지, 건강향상에 관련하여 간호원들은 더 많은 독자적 판단과 책임을 갖고 담당해 나가야 할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임무 수행은 의사의 입장에서 이용되던 방편으로가 아니라 건강 중심의 framework 을 통한 순수한 간호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제 우리는 집단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정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보며 우리의 공헌을 통해 우리 자신을 평가 받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비하여 우리는 첫째로 간호의 본질적 사명인 질병예방, 건강유지, 건강증진을 통한 개인과 가족, 또한 사회의 안녕복지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함을 돕기 위한 건강 중심의 간호이론의 확립으로 Nursing Framework 을 산아야겠다. 예를 들면 Adaptation Theory 가 말하는 정상한 사람들의 적응하는 형태를 기저로 한다면지 Developmental Theory 를 배경한 framework 을 판단든지 Dynamic Homeostatic Theory 를 골수로 한 것이든지 아니면 인간의 계 특성을 기반한 Holistic (Ex)istential framework 을 발전시킨다면지 하여 진정한 건강과 복지상태를 비취볼 거울, 혹은 중국적인 표적을 살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겠고,

둘째로,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간호요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계통적인 연구가 꾸준히 행해져야겠고 지역사회 요구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참여,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 훈련으로서 사회 어느 측면에서든지 어떤 간호문제나 어떠한 대상을 놓고서라도 효율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학습경험을 기획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많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협력적 관계에서 함께 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기회도 마련되어야 할 줄 안다.

셋째로 학습활동 계획에 있어서는 종래의 지

식전달을 위주로 한 학습형태를 지양하고 무한한 flexibility와 계속적인 적응력, 창의력을 요구하는 변화속에 있는 인간을 간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개발식 방법, 독자적 혹은 자주적 학습방향을 적극 지원하여 기본능력을 함양하며 광범위한 간호현장에 초점을 둔 과정 중심의 교육을 적극 시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현대 간호 이념을 실현하며 지역사회 요구에 대비할 간호교육을 목표로한다면 분명 현재의 질병과정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건강에 초점을 둔 인생과정 중심의 교과 내용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여기에서 중요교과 내용으로 채택되어야 할 내용을 개관하여 보면 우선 개인의 정상 성장 발달과 일생을 통하여 겪고 적응해 나가는 인생과정에 대한 이해를 들 수 있고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과 개별차에 대한 이해, 정상적이나 굴곡이 많은 성장 발달 양식에 대한 이해, 인간을 모든 구성요소의 합으로서가 아니라 역동적인 행위의 합으로 인식하는 일과 각기의 적응양식 및 그 기전에 대한 이해 및 개별적으로 영향하는 환경여건의 관계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로 최소의 사회 단위로서의 가정집단의 인생과정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내용으로서 가정 구성 초기부터 팽창되는 가정, 출가 축소되는 가정,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유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 운명체로서의 한 가정집단이 경과하는 표면적인 과정 및 그 내부에 있어서의 모든 역동적인 인간관계와 Stress에 적응 성장해 나가는 Style에 대한 이해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그 중요 내용으로 학습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는 곧 우리들 학생과 교사와 환자와 사

회집단이 어떻게 행위하는지를 이해하는데 기반이 되기도 한다. 지역사회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 구성요원들이 어떠한 생활양식을 가꾸어 왔는지 어떠한 의식구조를 배경으로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지역사회에 공적으로 나타난 혹은 잠재하고 있는 어떤 소사회집단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혹은 어떤 집단들이 그 사회속에서 크게 영향력 있는 구룹들인지 또는 각기의 조직 내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행동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총괄적으로 적어도 간호이론의 접수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생성되고자라고 적응해 나가며 Life Process의 전 과정이 위기를 조성한다는 각기의 시점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야기되며 그 결과 어떠한 적절한 도움이 개개의 적응력을 강화시키며 성장발달을 조장할 수 있는지 혹은 구할 수 없는 병적인 상태에서 가능한 최선의 도움을 어디에 찾을 수 있는지를 진단하여 간호상 문제점들을 찾고 그 시정방안을 모색하여 개인과 가정 나아가 지역사회를 도와 정상적이고 건강한 복지상태로 이끌어 가는 데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서 적

- Kuhlen, Raymond G., *Studies in Educational Psychology* Blaisdell Publishing Comp. Waltham, Mass. 1968
- Orlando, Ida Jean., *The Dynamic Nurse-Patient Relationship* G.P. Putnam's Sons, New York. 1961
- Dunn, Halbert L., *High Level Wellness* R.W Betty Comp. 1961
- Anonymous, "Death in the First Person", *A. J. N.* 70:2:336, Feb. 1970
- 대한간호협회, 간호행정과 가족계획 세미나 보고서

대학간호교육의 이념은 바람직한가?

패널

토의

이귀향, 김순자
최연순, 한문복

“가치관과 주체성 확립의 뒷받침이 필요”

서울의대 간호학과
이귀향

국제간호 규약이 설명한 바와 같이 간호원의 기본책임은 생명보존, 고통경감, 건강증진이며 인류에 대한 봉사는 간호사업의 존재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급변하는 시대상, 사회상으로 보아 미래의 간호성장을 위해서 건전한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학생으로 하여금 언제나 유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원리를 습득시키고 어떤 상황이나 경험을 이상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줌으로서 간호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런 원칙이나 판단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 간호교육자는 항상 학생들의 고민, 갈등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의 관심을 기우려야 될 줄 안다. 간호의 이념을 확고히 이행키 위하여 그들의 가치관과 주체성 확립을 뒷받침해 주어야 될 줄 안다.

“환경에 적응하고 평형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인간을 이해”

고려의대 간호학과
김순자

간호교육의 이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은 기성간호교육자나 간호원들의 간호의 이념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간호의 이념은 물론 사회적요구를 의미하여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오늘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호가 무엇이며 간호의 대상인 인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다.

인간은 광범위하고 변화무쌍한 외부적 입지조건에 적응할 수 있고 적응함으로써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며 특성중 하나는 그룹형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그룹원(Group mem-

ber)들 간의 협동과 책임을 위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언어와 문자로 소동하고 범규에 준해 통치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적고 큰, 짧고 긴 Stress를 받고 있고 대개의 경우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적응함으로써 평형을 얻고 발전 성장했다.

간호라함은 인간이 내적, 외적 환경의 Stress에 적응하여 "인간의 생명유지를 가능케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평형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도와 개인 최상의 건강수준에 도달토록 도와주는 전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호는 전문간호원이건 한 개인과 연고있는 어떤 다른 개인이건 간에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전문간호원이 참여해야 할 분야는 즉 영역은 어떤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고유한 사회의 가치관과 요구에 준하여 옮겨 파악하여 이념 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질 위주의 교육방법과 교육제도 및 연구기관의 육성”

연 세 대 간호대학
최 연 순

제일 마지막 Panel로서 할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하셔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종의 미를 위한다고나 할까요 간단한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간호 교육 제도면에서 고등 간호학교, 간호 전문 학교, 간호 학교, 간호 대학등 4가지 계층에서 간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간호대학 과정에 대해서만 물론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반 대학과 간호 대학과를 비교해 볼때 발달해 가는 고등 교육과 높아만 가는 사회 수준에 과연 우리 간호 교육이 정위치에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1972년 현재 173개의 독립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4년제대학이(25개의 종합 대학을 포함) 69개이며 2년제 초급 대학이 12, 2년제 교육 대학이 16, 5년제실업 고등 전문 학교가 20, 2~3년제의 전문학교 24, 2~3년제의 간호 학교 19, 각종 학교 13이라 한다. 그러면 173개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간호 대학 과정은 서울 7, 부산 1, 경북 1, 전남 2, 충남 1, 해서 12학교이며 간호 학교는 19, 간호 전문 학교 7, 해서 38학교가 간호 고등 교육 기관이라 보겠다. 그리면서도 대학생과 고등 기술 학생이 같이 국가고사를 쳐서 같은 면허를 소지하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생수는 22만명에 달하는데 간호고등 교육을 받는 학생중 대학 과정은 3,000명이며

초급 대학 과정의 간호 학생수는 5,000여명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일반 정규대학이 69개인데 대하여 단과 대학으로 된 간호 대학은 2인 실정입니다.

해방이후 급격한 대학의 증가와 비례해서 간호대학은 양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전체적인 고등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에 비해서도 간호 학생의 숫자가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간호학이 대학과정으로 승격된 역사는 10여년이 되는데 이기간에 단과대학이 되고 학생의 수 호도 급격히 증가는 했으나 일반적으로 볼때는 현저한 발달을 찾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거듭하며 10여년간에 간호학은 적으나마 발달을 하였고 급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간호학도들의 발돋움으로서 발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호 이념은 어떠한 바탕하에 설립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때 제도면에서 3~4가지 학제에서 간호학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적 교육이 무엇인지 망각한 인상인데 더구나 간호학의 이념 자체가 학문적 협동체로서의 기본 성격이 불분명한데다 고등 교육의 이념이 교육, 연구, 봉사라고 한다면 이 3단계가 조화있게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 강연에서 흥여신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호교육이 의학 교육의 뒷차닥거리인 교과 과정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나름으로의 이념 확립이 불가능 하였다고 생각되며 교육자도 마찬가지로 간호학을 전공한 교수가 아니고 의사들이 강의를 해온 형편이므로 간호원을 위한 전문 교육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호 학문은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원이 인간을 간호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병마 또는 환부만 들여다 보고 간호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고 봅니다. 환자와의 대화도 없었고 일처리 중심의 간호를 하였다고 봅니다. 크기는 타 학문과의 대화도 없었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인접학문인 의학을 전공하는 이들도 대화를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봅니다.

“간호는 전문적이다” 이렇게 간호가 전문적이라면 그 기본 성격과 목적을 명료화 하여야 하고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하여 사회에 봉사를 하여야 하는데 간호라는 지식을 임상에서만 소극적으로 활용하였지 인류의 안녕을 보는 커다란 면으로는 미약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해서 140학점에 알맞는 양보다는 질 위주의 교과 과정을 만들어 간호가 무엇임을 고취시키는 교육 방법이면 간호의 이념이 탄생되리라 믿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는 여지껏 미약했던 각 대학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지역적 특성화를 살리고 교수의 층원문제로서 교환을 생각해 보고 대학원 교육 강화를 해야 하며 장학금을 마련하고 연구 기관을 육성하고 대학원 상호간의 협력 과정등인데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을 든다면 간호원의 큰 단체인 대한 간호 협회는 사무 처리나 당면한 문제 처리도 중요하지만 한발 나아가서 연구를 위한자료, 정보 수집, 경제적인 뒷받침까지하여 연구를 도와준다면 간호학의 이념은 나날이 뚜렷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기성 간호원의 간호이념의 확립은

교육과정 운영에 선행되어야 한다”

가톨릭 의대 간호학과
한 윤 복

주제강연에서 지역사회의 구성 요소들의 생활양식, 의식구조를 배경으로하는 가치관의 형성과 상호작용의 이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가치관의 형성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욕구, 생활양식등의 직면하고 있는 사회상과 더불어 변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사회의 역사 문화의 조류가 바탕이 되고 있는 사회가치관이 교육 목표 달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이질적인 동서문화의 가치관의 혼란, 여성의 지위, 직업관등은 어떤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는 간호의 노력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환자는 그의 문제를 노출하지 않으려 하며 도움 받기를 사양하는 일도 흔히 있다고 본다. 여기서 간호원과 환자와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원의 역할 기대와 큰 차이를 보였고 전문직의 역할 행동의 중대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간호이념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간호교육에서 간호이념을 강조하지만 기술자라는 전통적인 직업관에서 벗어나지 못함과 교육자가 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데 실패했다는 점, 간호학 자체의 미대상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허탈감 또는 좌절감을 지적하면서 교육을 통하여 그릇된 이념을 대치 못하면 지성있고 능력있는 여성을 간호계에 흡수하는 경쟁에서 후퇴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교육 이념을 기초로 하여 간호교육을 어떻게 행동화시키며 생활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간호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상당히 논의 되었고 이제는 실천단계로서 운영상의 어떠한 혁신을 가져올 때가 됐다고 본다.

간호원의 활동범위는 변했어도 기본 원리는 변치 않을 것이다. 유형의 의료행위와 관리업무의 과정에서 기본 직능은 그 빛을 상실하고 간호행위는 고도로 기계화되고 비 인격화되고 있다. 간호이념이 여기서 정제하고 있으면 간호원 무용론이 대두되기 쉽다는 것이다. 전문 간호원의 올바른 자세와 바람직한 교육은 서로 불가분의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가치관의 변동 및 간호이념의 확립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